



일본의 「의료」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는 법, 입원하는 법, 구급시의 대응, 약국,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의료기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칙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1 의료기관의 기초지식

(1) 의료기관의 종류

일본의 의료기관은 입원과 검사의 설비가 갖추어진 큰 병원과 가까운 데에 있는 개인의원이나 진료소로 나뉘어집니다.

의원·진료소·클리닉은 입원설비가 20 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으로 입원 설비가 없는 곳도 많으며, 가벼운 증상일 때에 진찰을 받습니다.

한편, 큰 병원에는 입원설비나 검사기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공립의 병원 등에서는 전문마다 고도의 의료체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200 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의원 등으로부터의 소개장이 없으면 돈이 필요 이상으로 드는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의원(진료소)에서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큰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근처에 어떤 의료기관이 있는지 조사해 둡시다.

평상시의 가까운 주치의원

감기나 배가 아플 때 등 가벼운 증상



의원 진료소

급할 때의 큰 병원

중병이나 무거운 증상, 큰 부상



큰 병원(종합병원)

소개장

중병이 발견되었을 때
수술, 입원이 필요한 때



(2) 진료과목

의원, 병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진찰과목이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과 일부의 진찰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 진료소,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진찰을 받을 때는 질병이나 부상에 맞는 곳을 고릅니다. 주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등으로 큰 병원일수록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진료과목의 실제와 어떤 질병을 진찰받을 수 있는지 그 일례를 소개합니다.

진료과목

내과	약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과이며, 감기를 비롯한 질병 일반을 진찰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병인지 모를 때 우선 진찰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외과	외상에 관련된 치료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술을 요하는 치료를 합니다.
소아과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질병 일반을 진찰받을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골절이나 염좌, 요통 등 뼈·관절·근육에 관련된 치료를 합니다.
안과	눈의 질병 일반을 진찰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시력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충치치료 등 치아에 관련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뇌신경외과 등이 있습니다.

큰 병원 등에서 어느 과에 가면 좋을지 모를 때는 증상을 말하고 접수처에서 물어 보십시오.

(3) 선착순번제와 예약제

일본의 의원, 병원의 대다수는 선착순번제입니다. 그 때문에 1~2 시간이나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치과에서는 예약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의원과 병원에서도 예약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